

천주교 캔버라대교구 한인 성당

The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Archdiocese of Canberra and Goulburn

(백) 부활 제 4 주일 (성소 주일)



전담신부 : 진윤기 토마스 아퀴나스

주일미사 : 오후 3시

고해성사 : 미사 전 30분

어린이 전례 : 주일 오후 3시

유아세례 : 이메일로 문의 주세요.

(이 메 일 : canberra.kcc@gmail.com)

주 소 : South Belconnen Parish

7 Bindel Street, Aranda, ACT 2614

안내전화 : 0490-795-346

홈페이지 : <https://www.kcccanberra.org/>

성모님과 함께 하는 기도모임(9일 기도)

화요일, 19:00, 온라인(Zoom)

퀸비안 사랑의 선교회 봉사활동

일시 : 매월 둘째 주 토요일 09:00~12:00

장소 : 3 West Ave, Queanbeyan, NSW

※ 교황님 기도지향(5월)

복음화 지향: 젊은이들의 신앙

충만한 삶을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젊은이들이 성모님의 생애에서 경청하는 법, 깊은 식별, 신앙이 싹틔운 용기, 헌신적인 봉사를 배우도록 기도합니다.

※ 어린이 안전 규정

성당 주변에서 어린이들이 보호자의 보호와 지도 아래 있을 수 있도록 유념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전례 오늘은 부활 제4주일이며 성소 주일입니다. 기쁨과 평화의 샘이신 하느님께서 사람의 앞날을 성자의 권능에 맡기셨습니다. 하느님께서 성령의 힘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어, 세상 일을 하면서도 생명의 샘으로 이끄시는 좋은 목자를 떠나지 않게 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제1독서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13,14.43-52
<이제 우리는 다른 민족들에게 돌아섭니다.>

화답송 시편 100(99),1-2.3.5(◎ 3ㄷ 참조)
◎ 우리는 주님의 백성, 그분 목장의 양 떼라네.

제2독서 요한 묵시록의 말씀입니다. 7,9.14ㄴ-17
<어린양이 그들을 돌보시고 생명의 샘으로 그들을 이끌어 주실 것이다.>

복음 환호송 요한 10,14 참조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착한 목자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 알렐루야.

복음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0,27-30
<나는 내 양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다.>

영성체송
착한 목자, 당신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셨네. 당신 양 떼를 위하여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네. 알렐루야.

영성체 후 묵상
사도들은 기쁨과 성령으로 가득 차, 모독하는 말을 하며 반박하는 이들 앞에서도 담대히 부활을 증언합니다. 우리도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하신 예수님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예수님을 따르며, 우리에게 천막이 되어 주시는 하느님의 보호 아래 용감한 부활의 증인이 됩시다.
<그리스도와 일치를 이루는 가운데 잠시 마음속으로 기도합니다.>

부활 제 4 주일

♣ 오늘의 묵상 - 전삼용 요셉 신부 ♣

저는 신학생 때 유학을 나가 성서신학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사제가 되어서는 전공을 바꾸고 싶은데, 이득이 있을까 싶어 다니던 학교에 다시 갔습니다. 석사 할 때 교의 과목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공부시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한국인들에 대한 편견이 좀 있고 깐깐하기로 소문난 분이 학장님이 되어 계셨습니다. 저는 당연히 같은 학교이니 석사 때 들은 과목들을 빼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절대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과목을 많이 신청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때는 석사과정이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려는 분위기였습니다. 많이 들어야 2년 안에 석사를 끝낼 수 있었습니다. 그분은 규정이 바뀌어 그것도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집에 돌아와 학과규정을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규정에는 분명히 학장님이 말한 것보다 더 들을 수 있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아마 교수회의 때 정한 것을 책자에는 고쳐 놓지 못하였던 것 같습니다. 다음 날 다시 규정을 보여드렸더니 짜증을 내시기는 했지만, 일단 그렇게 쓰여있으니 어쩔 수 없다며 저의 학과등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내 생각이 너무 강하면 점점 타인의 말이 들리지 않게 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라고 하십니다. 유대인들은 알아듣지 않으려고 귀를 막고 계속 말해달라고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분의 양이 맞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있을까요? 하루에 한 번이라도 나에 대한 주님의 뜻을 여쭙어본다면 그 사람은 분명 그리스도의 양이 맞습니다. 그리스도의 목소리는 우리를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를 알려주십니다. 그러니 나의 삶의 방향에 대해 '어떻게 사는 게 주님의 뜻일까?'를 묻는다면 그 사람은 목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양이 맞습니다. 주님의 뜻이 옳을 수 있다는 마음을 가져야 귀가 열리고 믿음이 생깁니다.

요한은 우리 모든 인간이 하느님의 성전이 될 수 있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성전을 허물면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고 말씀하신 성전이 바로 예수님의 몸을 가리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요한 2,21). 그리고 불은 곧 성령을 가리키는데 성령께서는 우리 뜻을 사르고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십니다. 따라서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의 양이 될 수 없었던 이들은 자기 자신을 주님의 성전으로 봉헌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목소리를 알아듣기 위해서는 우리 뜻보다 주님의 뜻을 우선시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 부활 제 4 주일 복음 필사 |

내 마음의 성경
한 구절



'양을 돌보는 목자'
장 프랑수아 밀레 작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요한 10,27).

.....
.....
.....
.....

※이번 주일 복음을 읽고 마음에 와 닿는 구절을 직접 필사해보세요.

예비신자 받아들이는 예식(5월 15일 주일)

교회 구성원들이 공적으로 한 자리에 모인 곳에서 예비자들은 자신의 뜻을 교회에 열어 보이고, 교회는 그 사도적 사명에 따라 교회 구성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을 받아들이는 '예비신자 받아들이는 예식'이 5월 15일(주일) 미사 중 있습니다. 많은 교우분들의 기도와 관심을 바랍니다. [※ 대상자 : 왕 케이티, 박해진, 윤은민]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제 59 차 성소 주일 담화 - '인류 가족을 이루라는 부르심'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서는 성소 주일을 맞아 로마 성 요한 라테라노 대성전에서 부활 제 4 주일, 성소주일 미사를 거행하신 후 담화를 통해 사제와 수도자뿐만 아니라 평신도 모두에게도 주어진 하느님 부르심의 의미를 일깨우시며 다음의 다섯 가지 부르심에 대해 설명하셨습니다.

모든 이가 교회 사명의 주체가 되라는 부르심

함께하는 여정인 시노달리타스(synodalitas)는 교회의 본질적인 성소입니다. 우리는 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자기 바깥으로 나가며 역사 안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기 위하여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평신도와 사목자가 하느님의 한 백성으로 그리스도의 사명을 함께 이어 나가야만 합니다. 교회 전체는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입니다.

서로의 보호자 그리고 피조물의 보호자가 되라는 부르심

우리는 피조물의 눈부시게 훌륭한 공동의 집에서 그 구성 요소들의 조화로운 다양성 안에서 단 하나의 가족이 되라고 부름받았습니다. 이러한 넓은 의미에서 개개인들뿐만 아니라 민족, 공동체, 다양한 분야의 단체들도 '성소'를 가집니다.

하느님 눈길을 환대하라는 부르심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맡겨 주시는 성소에 더욱더 마음이 열리도록 하느님 말씀에 귀 기울입니다. 또한 믿음 안의 형제자매들에게 경청하는 법을 배웁시다. 우리가 나아가야 할 언제나 새로운 길을 보여 주시는 하느님 계획이 드러나는 데에 그들의 조언과 모범이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느님 눈길에 응답하라는 부르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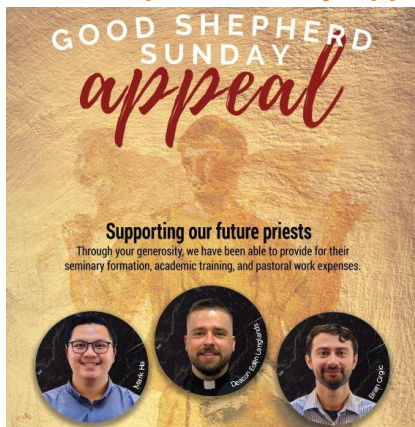
우리의 삶은 하느님의 눈길을 환대할 때 변화합니다. 모든 것이 우리 자신과 주님 그리고 우리 자신과 다른 이들이 나누는 성소의 대화가 됩니다. 깊이 있는 대화는 우리가 더욱더 본연의 모습이 되게 만듭니다.

형제적 세상을 이루라는 부르심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개별적으로만 성소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함께 부름받았습니다. 우리는 모자이크를 이루는 조각들과 같습니다. 각각 그 자체로도 사랑스럽지만 모두 함께 모여 있을 때에만 하나의 그림을 이룹니다.

※ 담화문 전문: <https://cbck.or.kr/Notice/20220369?gb=K1200>

Good Shepherd Sunday Appeal 안내



착한 목자 주일(성소 주일) 헌금이 있습니다. (별도 헌금봉투 사용) 교우분들의 정성스런 봉헌을 바랍니다. ※ 후원 대상(좌→우) Mark Ha(신학생) Eden Langlands(부제) Bran Grgic(신학생)

예비신자 성지순례

일시 : 5월 28일(토) 오전 11시
장소 : 자비의 성모성지, 120 Hanging Rock Rd, Sutton Forest, NSW 2577
일정 : 오전 11시 성지미사(영어), 중식, 성지걷기, 묵주기도, 해산(15시)
문의 : 주정자 루치아


교구 사제연수

일시 : 5월 16(월)-19일(목)
장소 : Saint Clement, Galong, NSW

| 부활 제 4 주일 주간실천 |

피조물 보호를 위한 50가지 손쉬운 방법 45

음식은 먹을 만큼만 요리하기
(자료 제공 _ 주교회의 생태환경위원회 CBCK)



생활 속 작은 실천으로 탄소발자국 줄이기 2

수입식품 사용 10% 줄이기
→ 1.39kg의 탄소 발자국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료 제공 _ 주교회의 생태환경위원회 CBCK)



cpbcTV 가톨릭콘텐츠의모든것
[기도를 부탁해]

5월 첫째 주 기도 사연을 들려드립니다



[동영상 보기 - 이미지 클릭]

유재선 신부 | 안창호 신부 | 김현수 신부
이헌준 신부 | 김영복 수녀 | 이용옥 신부

2022년 어머니의 날 맞이
공동체 행사 기념사진



@ Four Winds Vineyard

2022년 5월 6일 금요일

2022년 주님 부활
대축일 기념영상



[동영상 보기-이미지 클릭]

□ 주일 미사 참례자수

4월 24일	대교구 다문화 미사	5월 1일	성인 42 아이 18
--------	------------	-------	-------------

□ 우리들의 정성 (4월 30일(토)~5월 6일(금))

구민식	권묘순	김요한	김천주	남궁영근	안영규	양홍석	윤현태
이국원	이지영	장호훈	조성민	주정자	진윤기	한상지	허준
교무금 : \$910 (16가정) / 봉헌금 : \$250				카리타스(우크라이나사태) 모금 : \$50			

※ 교무금 온라인 납부/공동체 계좌 정보 (Reference : 납부자 이름 반드시 기재)

Name : Korean Community Church / BSB : 062786 / Account Number : 000027424

□ 봉사자 안내

- 독서 : (5월 8일, 부활 제 4 주일, 성소 주일) 이상명 다니엘, 이명진 이사악
(5월 15일, 부활 제 5 주일) 주정자 루치아, 허준 안토니오
- 미사 후 성당 뒷정리 : (8일) 마태오반 → (15일) 루카반 → (22일) 요한반
- 미사 후 다과-친교(매 2주 1회) : (15일) 마르코반 → (29일) 마태오반

□ 최신 코로나 19 방역수칙

- 실내 마스크 착용 자율, ○ 성당 출입 시 손 세정 및 미사 후 성당 뒷정리
(※ 성당 출입 시 QR 코드 스캔, 체온측정 중단)

♡ 2022년 어머니의 날 행사(5월 6일, 금요일)가 잘 준비되고 진행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애써주신 교우분들, 차량 봉사를 해주신 황병욱(시몬), 장호훈(마르코), 피터 형제님과 이날 행사에 함께 해주신 여성교우분들께 감사드립니다.